



자꾸 꿈에 나타나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1달 전쯤에 아기를 낳았어요. 원하지 않은 아이라(아는 오빠한테 폭행 당했어요.)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그 동안 입덧도 없어 모르고 있다가 너무 늦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힘들게 아이를 낳고 아동복지원에 아이를 맡겼는데 그 뒤로 자꾸 악몽에 시달려요. 한번은 제가 결혼해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 때었는데, 초등학생쯤 되는 한 남자가 제게 와서 그때 왜 자기를 버렸냐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막으로 병원에서 봤던 그 아이가 자꾸 꿈속에 나타나 울곤 했어요. 적도 수 없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또 다시 꿈속에 나타나 저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킬까 봐 겁이 나요.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와 같은 일로 고민하는 미혼모들도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떤 이유든 내담자의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 그 선택으로 아이가 세상을 보게 되었고 현실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님의 지금 심정이 어떨 것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나날에 자신을 물어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찰이며 자기 방조가 됩니다.

자포자기한 생각이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기에게 두 번 잘못 하는 것이겠죠. 첫째는 친모로서 사랑으로 아기를 키워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둘째는 자식을 포기한 엄마로서 그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지요. 최소한 아기를 포기한 것은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었겠지만 포기하는 만큼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니 당당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야 하겠지요.

죄의식으로 자신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 포기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처럼 꿈속에서 그 아기를 만날 때마다 괴롭고 고통의 번뇌를 갖게 될 겁니다. 울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더욱 고통스럽기만 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문제일 겁니다.

그러기에 ♡♡님을 포함해서 지금도 미혼모로서 순산의 기쁨을 겪으며 낳은 자식을 품에 한번 안아 보는 것으로 이별을 해야하는 산모가 많이 있죠.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란 호칭을 듣는 모든 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묻어 두고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고통일 겁니다.

앞으로는 미혼모나 중절수술로 인해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